

BRICs 이후 신흥시장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평가

박영호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parkyh@kiep.go.kr, Tel: 3460-1231)
 김권식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전문연구원(kskim@kiep.go.kr, Tel: 3460-1228)

주요 내용

- BRICs 이후의 새로운 유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IBSA, BRICKS, NEXT-11 등 post-BRICs 신흥시장들을 표현하는 신조어들까지 속속 만들어지고 있음.

 - 이중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IBSA, BRICKS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포함된 반면 NEXT-11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신흥시장으로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좌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 보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신흥시장으로서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함.
- 최근 BRICs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소위 NEXT-11국가들과 비교 평가해 본 결과, 예상외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적 위상은 상위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또한 아프리카 시장진출 및 확대를 위해 가장 전략적인 거점국가로 분석되었음.

 - 주요 선진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잠재적 가치와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위한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고 FTA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격상시켜 나가고 있음.
- 우리도 對아프리카 경제협력 기반과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아프리카의 전략적 거점시장’ 또는 ‘미개척 틈새 유망신흥시장’ 으로 그 가치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FTA일 것임. 교역재를 중심으로 살펴본 한·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수출증대 효과는 현재 수출규모 대비 각각 35.7%(한국), 11.9%(남아프리카공화국)로 시산됨.
 - 또한 경제발전에 필수 요소인 숙련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개발 등 한국형 경제개발경험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한 협력의 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1. BRICs 이후 새로운 유망시장으로 부상

- BRICs 이후의 새로운 유망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미 IBSA(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BRICS(BRICs+카자흐스탄·남아프리카공화국)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골드만 삭스는 BRICs 이후 새롭게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으로 NEXT-11을 선정 발표하였음.
- 기존의 선진시장은 물론 BRICs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신흥시장의 경우, 이미 시장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red ocean)이기 때문에 새로운 유망신흥시장 발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음.
- BRICs 이후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이미 BRICs 이전부터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으로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으로 평가되었음.
- 미 상무성은 지난 1994년에 세계 10대 거대 신흥시장국(Big Emerging Markets)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시킨 바 있고, UNCTAD(UN무역개발위원회)는 다국적기업의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투자 매력도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함.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소비시장, 제조업 생산기지, 천연자원 등의 다중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각종 경제통합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핵심국가로서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국가로서의 가치도 높음.
-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새로운 기회의 시장으로서 재조명되어야 함.
- 남아공을 아프리카 대륙의 하나의 낙후된 국가로 동일시하는 회의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對 아프리카 관계의 틀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치를 조명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임.
- 이에 본고에서는 BRICs 및 NEXT-11국가 등과의 비교·평가를 통해 신흥시장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프리카 거점국가로서 또는 FTA 대상국가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잠재력을 분석하고자 함.
- 아울러 신흥시장으로서 갖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특유의 위험요인도 함께 분석해보고자 함.

2. 신흥시장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

가. 저평가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신흥시장

- 세계 유명기관들이 발표하는 몇 가지 지표들을 기준으로 볼 때 신흥시장으로서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BRICs 국가와 NEXT-11 국가 중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성과로 측정되는 성장경쟁력지수, 경제자유도, 비즈니스 용이성 등의 기준으로 볼 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환경은 BRICs와 NEXT-11 국가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부패지수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됨.

표 1.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평가¹⁾

		부패지수	경제자유도	성장경쟁력지수	비즈니스 용이성
남아프리카공화국		30.1(1위)	32.7(1위)	35.9(1위)	18.1(1위)
BRICs	중국	48.6	71.7	41.9	58.7
	브라질	40.6	50.9	55.6	76.8
	러시아	61.6	76.7	64.1	51.0
	인도	61.6	77.4	42.7	74.8
NEXT-11 ²⁾	방글라데시	—	89.9	94.0	41.9
	이집트	52.7	81.8	45.3	91.0
	인도네시아	91.1	86.2	63.2	74.2
	이란	59.6	99.4	—	69.7
	멕시코	43.8	39.0	47.0	47.1
	나이지리아	98.6	93.1	75.2	60.6
	파키스탄	—	70.4	70.9	38.7
	필리핀	69.9	62.9	65.8	72.9
	터키	52.7	54.7	56.4	60.0
	베트남	69.9	90.6	69.2	63.9

주: 1) 숫자는 각 지표의 순위를 상위 백분율로 계산하여 표시한 것으로써 숫자가 낮을수록 양호함.

2) 2005년 12월에 골드만 삭스가 발표한 BRICs 이후 11개국의 신흥시장을 의미함.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04, 2005; World Economic Forum, Growth Competitiveness Index 2005, 2006; Heritage Foundation, Economic Freedom Index 2005; World Bank, Easy of Doing Business Ranking, Doing Business in 2006.

- KIEP가 잠정 추계한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가치는 NEXT-11국가와 앙골라, 알제리 중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
- 성장성 지표와 시장성 지표를 기준으로 볼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음.

그림 1. 성장성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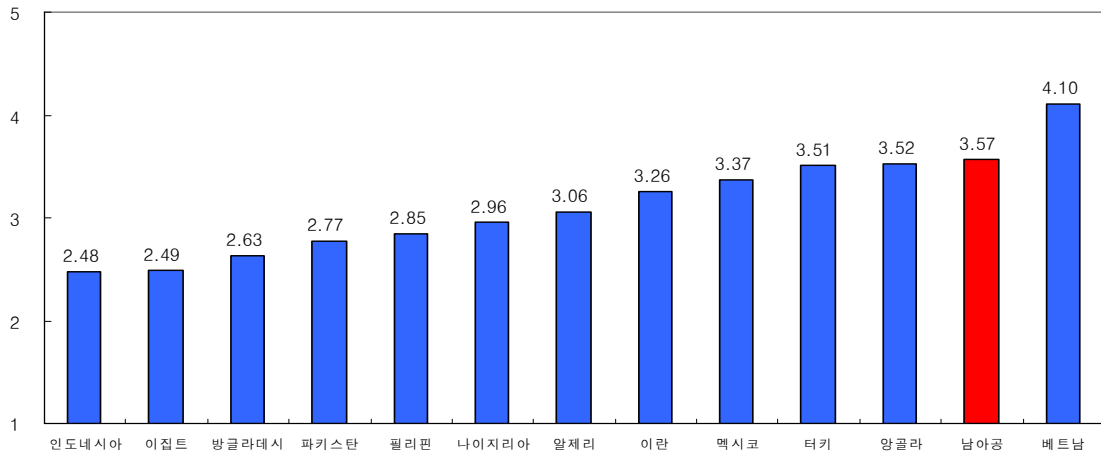


그림 2. 시장성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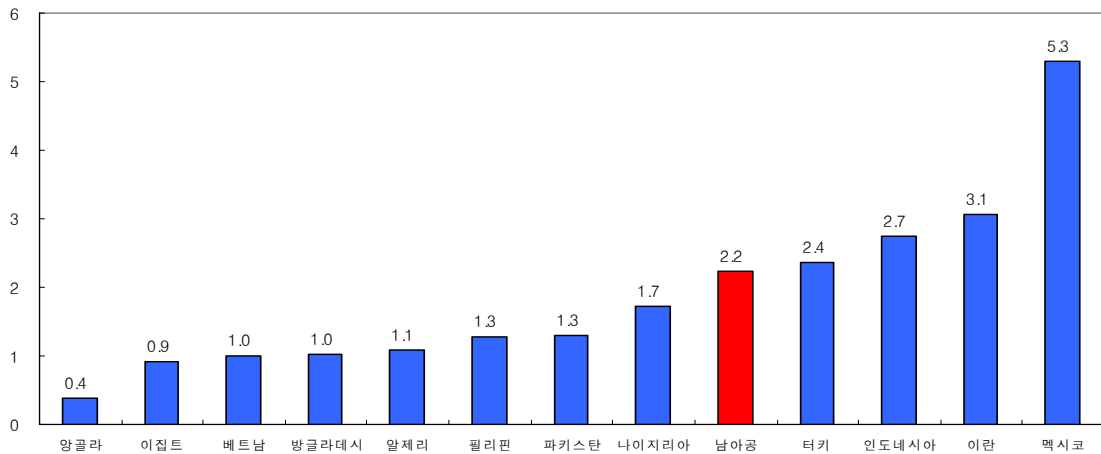


표 2. 평가지표 내역

	평가그룹 및 평가항목
성장성 지표	1) 구매력 증가율: 인구증가율, GDP 증가율, 수입증가율 2) 물적 성장기반: 대내투자/GDP, FDI/GDP, 인적자본 3) 제도적 성장기반: 기업환경, 정치안정도, 개방도, 부패지수
시장성 지표	1) 구매력: 인구, 1인당GDP, GDP 2) 천연자원: 석유, 천연가스, 석탄 3) 무역능력: 대(對)세계 수출, 대(對)세계 수입

- 이처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적 위상이 상위 그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BRICs 및 NEXT-11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등 저평가되고 있음. 이는 주로 인구증가율의 감소 가능성에서 기인함.

- 골드만 삭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장기적으로 3.5% 내외로 전실하게 경제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AIDS 등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 등을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BRICs 및 NEXT-11에서 배제시켰음.

나. 아프리카 거점시장으로 부상

- 세계 주요국들은 아프리카를 본격적인 무역 및 투자 협력파트너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 거점시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협력을 격상시키고 있음.

- EU는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을 확보하였고, 미국 역시 FTA 추진 등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새롭게 접근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가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와의 FTA 추진을 서두르고 있고 중국도 SACU와의 FTA 추진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SACU(South African Customs Union)는 1969년 12월 창설된 관세동맹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실상 SACU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임. SACU의 회원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보츠와나, 레소토, 스와질란드, 나미비아 5개국임.

- 최근 한국의 해당 정부부처와 전문가 그룹 등에서는 소위 '3 plus 2 거점국가' 접근방식으로 아프리카 진출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3 plus 2 거점국가' 접근전략은 알제리·이집트·나이지리아(대통령 방문국) 3개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2개국(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을 전략적 거점국가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이러한 거점국가 선정에 통한 접근방식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력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통합체별(unions) 시장 특성이 매우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방향임.

- 본고에서는 '3 plus 2 거점국가' 중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를 대상으로 과연 어느 국가가 거점국가로서의 가치를 더 많이 지니고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음.

- 거점시장을 선정하는 방법으로는 거시경제 및 경쟁력 지표 등을 동원할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상기 두 국가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경제 및 경제통합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각각

분석하여 최우선 거점국가로 선정하였음.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가 10% 성장하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은 2.2~2.5%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그 파급효과가 0.7~0.8% 정도인 것으로 분석됨. 해당 경제통합체에 미치는 효과 역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파급효과가 나이지리아보다 큰 것으로 측정됨.
-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형 경제구조를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되며 관세동맹과 같은 지역공동체 및 경제통합체의 활발한 교역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실증분석 결과로 유추해볼 때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및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우선적인 거점국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3. 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및 경제통합체에 미치는 효과

거점국가 10% 경제성장시	파급효과
남아프리카공화국 → 아프리카 지역(사하라이남)	2.2~2.5%
나이지리아 → 아프리카 지역(사하라이남)	0.7~0.8%
남아프리카공화국 → SADC(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통합체)	7.1~8.7%
나이지리아 → ECOWAS(나이지리아의 경제통합체)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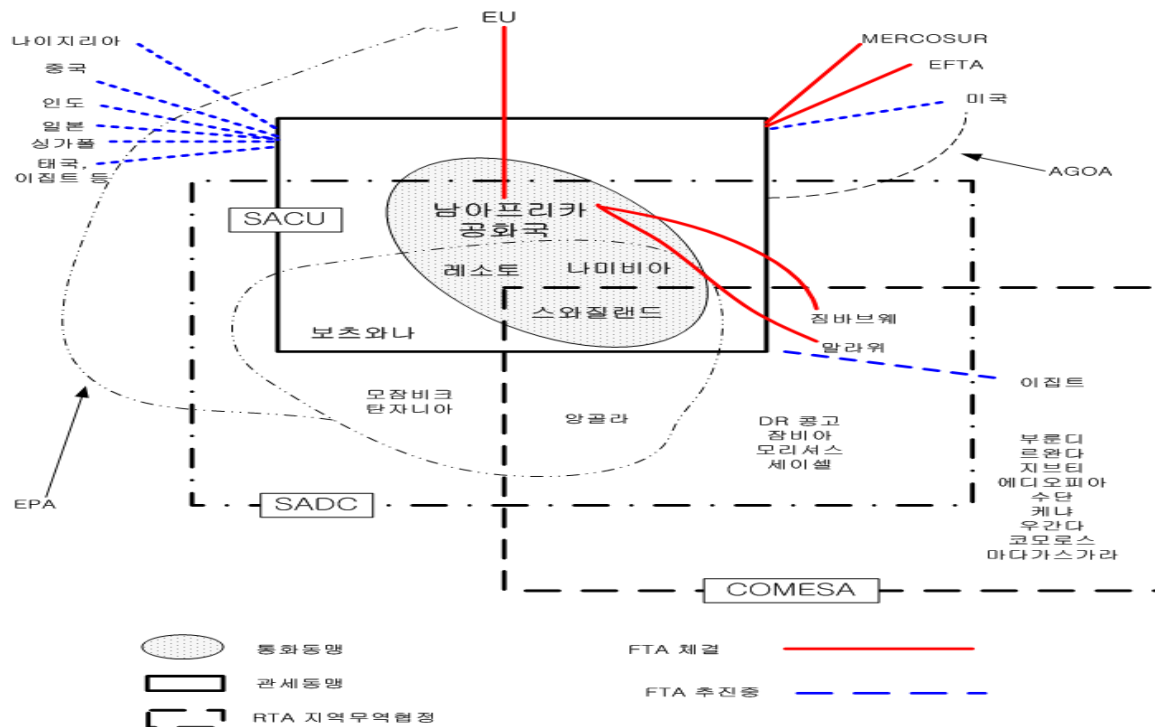
주: ECOWAS(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는 경제·통화동맹 설립을 목표로 경제·사회·문화협력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나이지리아를 포함해서 15개국으로 구성(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토고)되어 있음.

다. 주요 선진국 및 동아시아 국가의 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접근 시도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FTA 추진 동향

- 신흥시장으로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미 EU,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SACU와 FTA를 체결함.
- 미국 역시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SACU와의 FTA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

그림 3. 남아프리카공화국의 FTA 추진 동향



-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일본, 인도, 태국 등의 국가가 SACU와의 FTA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 특히 싱가포르-SACU간의 FTA 추진이 빨라지고 있음. 중국 또한 SACU와의 FTA 타당성 검토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문제연구소(South Af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에서는 이미 중국과의 FTA 타당성 연구에 착수하였음.

2) 한·남아프리카공화국의 FTA 효과

- 우리도 주요 선진국 및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수출지역 다변화 및 新수출동력 확보 차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산유국은 아니지만 각종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장임.

- 2005년과 2006년 1~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상품교역액 중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중은 각각 0.44%와 0.50%에 불과하고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구조가 차량 및 전기기기 등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점차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 한국의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4.9억 달러(00년) ⇒ 13억 달러(05년)

- 한국의 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입: 9.4억 달러(00년) ⇒ 11억 달러(05년)

■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한·남아프리카공화국 FTA 효과 여부를 교역재 중심으로 살펴 보았음.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양국의 품목별 수출증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세율을 완전히 철폐할 경우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품목별 수출증대 효과는 양국 모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재의 수출규모 대비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출증대 효과는 각각 35.7%와 11.9%로 시산되었음. 특히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차산업 분야에서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됨.

표 4. 한·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체결시 양국의 수출증대 효과

(단위: 천 달러)

구 분(HS 코드)		한국의 수출증대효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출증대효과
		FTA 체결후 증가액	FTA 체결후 증가액
〈1차 산업〉		126,576	48,313
농수산물	1~14	3,042	-
가공식품	15~24	-	-
광물생산품*	25~27	123,534	48,313
〈제조업〉		221,279	48,444
석유화학	28~40	-100,133	-
섬유/의류/가죽	41~43, 50~67	-64,470	9,206
금속1차제품	71~83	-	-
일반차량/부품	87	261,242	2,983
기타 수송기기	86,88,89	-	-
정밀기기	90~91	-	-
기타 제조업	44~49,68~70, 92~97	30,582	-40,845
컴퓨터	8471, 8473	-	56
반도체	8541, 8542	-	-
통신장비	8525, 8526, 8529, 8517	163,804	342
가전기기	85(나머지)	-69,754	24,821
기계	84(나머지)	-	51,881

주: * 예상외로 한국의 對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생산품류(HS 25~27)의 FTA 수출증대 효과가 1.2억 달러로 추정되었음. 광물자원 빈국인 한국의 광물생산품 수출증대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광물을 수입하고 다시 가공 등을 통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수출증대효과는 타당성이 있음. 통계치로 살펴볼 때 광물성연료(HS 27)의 경우, 2005년 기준 한국의 對남아프리카공화국 수입액은 1,100만 달러인 데 반해 對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은 이보다 3배 이상 큰 3,680만 달러로 확인됨.

3. 신흥시장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위험요인

- 신흥시장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으나 잠재적 위험요인 또한 적지 않음.
 - 골드만 삭스도 지적했듯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AIDS 등과 같은 문제임.
 - 세계은행은 AIDS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는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아프리카 빈곤국으로 전락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함. 골드만 삭스 역시 AIDS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또 다른 심각한 위험은 고실업 문제임.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고용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40%를 넘는 실업문제는 사회적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당국의 공식 실업률은 26%(이 자체로도 개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실업률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계됨. 특히 35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무려 70%에 육박하고 있음.
-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의 위험요인은 숙련 노동력의 부족,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빈부격차 등을 들 수 있음.

4. 시사점

- 신흥시장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제적 위상은 다른 유망신흥시장(BRICs, Next-11 국가 등)보다 상위 그룹에 있음. 이에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를 아프리카 지역의 낙후된 여러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전략적 거점시장' 또는 '미개척 틈새 유망신흥시장'으로 따로 떼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대외통상정책들, 이를테면 신시장 개척과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은 아프리카 최대시장이자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잘 실현될 수 있음.

-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시장의 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결코 소홀해 해서는 안 될 소중한 잠재적 시장임.

표 5.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자원의 세계적 위상

	매장량		생산량	
	비중	순위	비중	순위
규산알루미늄	37.4	1	38.0	2
크롬	72.4	1	44.5	1
페로크롬	-	-	46.0	1
금	40.1	1	13.8	1
망간	80.0	1	14.8	1
백금	87.7	1	57.8	1
티타늄	29.8	2	-	-
바나듐	27.0	2	48.0	1
질석	40.0	2	41.0	1
지르코늄	19.4	2	-	-
형석	16.7	2	5.0	3

자료: 남아프리카공화국 광물자원부, South Africa's Mineral Industry, 2004/2005.

- 아프리카 경제협력 기반 조성 및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모색해야 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자체시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시장진출을 위한 거점시장으로의 가치를 감안할 때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이 필요한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FTA라고 할 수 있음.
 -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는 단기적으로 높은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
- 한편 신흥시장으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지의 여부는 그들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음. 이러한 잠재 위험요인들은 단기적으로 볼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해결 능력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한 우리의 대(對)남아프리카공화국 협력 메커니즘의 개발이 필요함. 특히 경제발전에 필수 요소인 숙련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개발 등 한국형 개발경험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한 새로운 협력의 틀이 모색되어야 함.

부록

■ 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및 경제통합체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방법

$$- Y_{it} = \alpha + \beta X_{it} + e_{it}, \quad i = 1, \dots, N, \quad t = 1, \dots, T$$

$$e_{it} = \delta_i + \epsilon_{it}, \quad \text{where } \epsilon_{it} \sim i.i.d.$$

여기서, 종속변수(Y_{it}) : 아프리카 43개국의 1인당 실질GDP성장률

설명변수(X_{it}) : ① 남아프리카공화국 or 나이지리아의 1인당 실질GDP성장률, ② 아프리카 43개국의 GDP 대비 국내투자비중, ③ 아프리카 43개국의 인구증가율, ④ 아프리카 43개국의 GDP 대비 무역비중, ⑤ 아프리카 43개국의 GDP 디플레이터, ⑥ 아프리카 43개국의 GNI 대비 대외원조비중 혹은 아프리카 43개국의 1인당 대외원조규모

■ 한·남아프리카공화국 FTA 체결시 양국의 수출증대 효과 분석 방법

- FTA 체결시 수출증대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함.

$$\Delta M_i = \gamma_i \cdot \frac{(t_1 - t_0)}{(1 + t_0)} \cdot M_i$$

여기서, γ_i : i 품목에 대한 상대국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M_i : i 품목에 대한 상대국의 수입규모, t_0, t_1 : 현재의 관세율과 FTA 체결시 예상되는 새로운 관세율, ΔM_i :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관세인하를 반영한 i 품목에 대해 예상되는 수입 변화분.

-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γ_i)은 다음과 같이 추정함.

$$Y_{it} = \alpha + \beta_i X_{it} + \gamma_i z_{it} + e_{it}, \quad i = 1, \dots, N, \quad t = 1, \dots, T$$

$$e_{it} = \delta_i + \epsilon_{it}, \quad \text{where } \epsilon_{it} \sim i.i.d.$$

여기서, 종속변수(Y_{it}) : i 품목에 대한 對남아프리카공화국과 對한국 실질수입액

설명변수(X_{it}, z_{it}) : ①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실질소득(X_{it}), ② 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i 품목에 대한 상대적 수입물가 수준(z_{it})